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동 정

- ▶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은 지난 10월 5일 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 ▶ 김용구 중소기업진흥회장은 지난 9월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 ▶ 서상준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산악회장은 지난 10월 23일 치악산에서 제143차 정기산행을 개최했다.
- ▶ 부길만 범우출판포럼 회장은 지난 10월 20일 출판 문화회관에서 제1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부 음

- ▶ 장세림 삼정비스콤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6일 별세했다.
- ▶ 김형태 서울시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모친이 지난 10월 4일 별세했다.
- ▶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의 빙부가 지난 9월 29일 별세했다.
- ▶ 김종열 정성인쇄사 대표의 빙부가 지난 9월 27일 별세했다.
- ▶ 문화식 태화인쇄사 대표의 모친이 지난 9월 14일 별세했다.

인협, 도서관대회서 직지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에 36㎡의 규모로 참가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를 홍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주시의 지원으로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인협은 직지 영인본, 직지 제작과정 디오라마 및 홍보패널, 직지 홍보 리플렛 배포, 직지 금속활자 인쇄 체험 등의 코너를 꾸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창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경인쇄조합재산, 전체조합원대상으로 분배 결정

8년전 해체됐던 서울경인쇄조합의 재산분배를 놓고 벌였던 논쟁이 582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서울특별시경인쇄조합협동조합 청산위원회(위원장 안봉식)는 지난 9월 20일 조합 회의실에서 제21차 청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5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582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경인쇄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금비율'은 '해산 당시의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 비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향후 경인쇄조합의 재산분배는 10월 6일과 7일에 걸쳐 실시된 2번의 신문공고 후 2개월 이후 출자좌수에 따라 재산분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인쇄조합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위원회가 구성된지 8년만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인쇄센터, 과달라하라에 해외개척단 파견

(재)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는 서울시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25회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 해외개척단을 파견한다.

과달라하라국제도서전 해외개척단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인쇄센터에서는 도서전 부스임차 및 집기류 대여, 통역지원, 전시물품 운송 등을 지원하며 참가업체들은 출장자 여행경비(항공료, 숙박비 등 개별 경비)를 부담하면 된다.

▼ 포장기계협회, 창립기념 및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 개최



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63빌딩 3층 시더홀에서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회 창립 17주년 기념식 및 제13회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일해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힘을 모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열릴 서울팩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어 한 단계 도약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12회 포장기계대상 시상식이 함께 거행되어 (주)자비스 김형철 대표이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주)산호기계 김종철 대표이사, (주)리팩 이희식 전무이사, (주)세종파마텍 나진곤 책임연구원이 중소기업청장상을 각각 받았다.

>> 인쇄업체 및 관련업계 뉴스

▼ 대아인쇄, XL 75-6 인라인 코팅 인쇄기 설치



대아인쇄(주)(대표 이영수)는 최근 하이델베르크 사의 고성능 인쇄기인 T3절 규격의 XL 75 6도 인라인 코팅 인쇄기(XL 75-6LX)를 설치했다. 대아인쇄가 도입한 XL 75-6LX는 고품질 스티커 및 라벨 인쇄를 위해 필수적인 인라인 코팅시스템과 함께 UV와 IR 건조장치가 있어 PP, PE, 플라스틱 등 다양한 지질에도 높은 생산성과 인쇄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대아인쇄에 설치된 건조장치인 드라이

스타(DryStar)는 슈트 가이드와 함께 조화를 이뤄 인쇄기 최고 속도시, 잉크양이 높거나 까다로운 코팅에서도 건조 효율과 품질이 최상을 이룬다. 빠른 건조로 인해 후가공처리 역시 빨라져 전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건조장치는 배지부 콘트를 판넬이나 프리렉 프레스 센터에서 CANopen을 통해 중앙 구동될 수 있다.

한편 2008년 드루파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던 스피드마스터 XL 75는 시간당 1만

◆ 화 속

- ▶ 조태륜 부광인쇄 대표의 장녀 연동양이 지난 10월 15일 건대동문회관 웨딩홀에서 화속을 밝혔다.
- ▶ 김종하 (주)상지사P&B 대표이사의 장녀 가원양이 지난 9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화속을 밝혔다.
- ▶ 김병기 국일인쇄사 대표의 장녀 길영양이 지난 10월 3일 PJ호텔에서 화속을 밝혔다.
- ▶ 김경배 영진인쇄사 대표의 딸 지혜양이 지난 9월 2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화속을 밝혔다.

◆ 이 전

- ▶ (주)드림애드커뮤니케이션스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6가 121-8로 이전했다.
- ▶ 큐산업디자인연구소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66번지 일진인쇄센터 503호로 이전했다.

◆ 변 경

- ▶ 한국라벨정보산업협회가 명칭을 한국레이블인쇄협회로 변경했다.
- ▶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가 이창래씨에서 이창래, 김기호씨로 변경되고 사업장도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5-2 2층으로 이전했다.
- ▶ 조광출판인쇄(주) 대표자가 이택기씨에서 백갑석씨로 변경됐다.

8000장의 생산 속도로 T3절 규격 내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혁신적인 석션 헤드, 급지부에서 배지부까지 전체 용지 이송시 에어 사전 설정, 다이내믹 쉬트 브레이크 등의 기술로 50 x 70 cm 규격에서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한다.

▼ 성우에드컴, 2011 국제비즈니스 대상(IBA) 수상



(주)성우에드컴(대표이사 이민성)이 지난 10월 12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브다비 에미레이츠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1 국제비즈니스 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시상식에서 미디어, 광고 마케팅 PR 2개 부문에서 올해의 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IBA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비즈니스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이다.

(주)성우에드컴은 올해 지식경제부 산하 서부발전 사보 ‘에너지’지, 남부발전 사보 ‘남전’지, 한국가스공사 ‘KOGAS’지 등으로 수상하게 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07 ~ 08년에 이어 역대 3번째 IBA 수상이다.

또한 이번 IBA 시상식에서는 성우에드컴의 주요 고객사인 금융감독원(사보 ‘금감원 이야기’), 농심(사보 ‘농심’)도 각각 금융서비스, 고객서비스 부문에서 IBA 대상을 수상받아 수상의 무게를 더했다.

▼ 성우에드컴, 메인비즈 인증으로 ‘인증 5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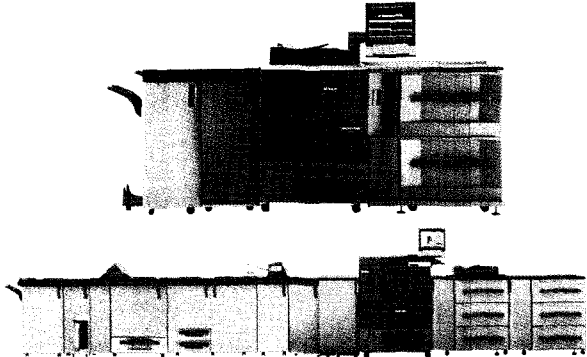
(주)성우에드컴(대표이사 이민성)이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메인비즈’ 인증을 획득했다.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리더십, 지속적 혁신,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 고객과 시장 중심 프로세스, 측정과 분석 및 지식정보관리, 재무제표 성과 등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주)성우에드컴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의 3개 경영인증과 ISO 9001 시스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로써 (주)성우에드컴은 인증 5관왕을 달성했으며, 이는 인쇄업계로서는 최초다.

이번 메인비즈 인증 획득에 대해 이민성 대표는 “향후 지속적인 인쇄 관련 R&D사업을 통하여 인쇄영역의 미래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을 중단기 기업목표로 설정할 것이다. 차별화된 경영 혁신활동을 통해 제1의 업체로 우뚝 서겠다”고 다짐했다.

» 제품관련 뉴스

▼ 신도리코, 디지털 인쇄기 ‘PRESS 시리즈 3종’ 출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가 고품질 컬러 출력, 강한 내구성, 높은 생산성을 장점으로 하는 컬러디지털인쇄기 ‘PRESS 시리즈 3종(C6000/C7000(사진 위)/C8000(사진 아래))’을 출시한다.

PRESS 시리즈는 고급 디지털 출력장비로, PRESS C6000/7000/C8000은 분당 60/71/80매(A4기준)의 초고속 출력을 지원하고, 안정되고 섬세한 컬러 표현과 편리한 조작 인터페이스로 출력량이 많은 인쇄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도리코는 신제품과 함께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여 디지털 인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PRESS 시리즈’는 진보된 컬러 인쇄 기술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원본 데이터를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출력 품질이 장점이다. 고해상도의 ‘Simitri HD’ 토너를 사용해 이미지 선명도를 높였고, ‘스펙트로포토미터(Spectrophotometer: 분광광도계)’를 통한 컬러 판독시스템을 장착해 인쇄품질을 안정화했다. 2중 구조의 고강성프레임을 본체로 설계하여 내구성은 높이고 용지의 진동과 비틀림을 최소화했다. 업서부터 A3 wide 사이즈까지, 64~300g/m²까지의 폭넓은 용지 대응력과 최대 1만7600매의 대용량 급지도 강점이다.

신도리코는 고객의 작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 제품 구성과 다양한 후가공 시스템, 유지보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테이플 피니셔, 중철 피니셔, 접지 유닛, 멀티 편칭 유닛, 펌프트 바이ندر 등 다양한 후가공 장비 옵션은 물론 LCD 터치패널의 위치도 인쇄 환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간편하게 제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ORUM(Operator Replaceable Unit Management) 시스템’을 활용하면 제품 고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신도리코 김성웅 이사는 “신도리코의 디지털 인쇄 장비는 산업 환경에 꼭 맞는 제품 구성과 솔루션으로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여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출시로 신도리코의 디지털 인쇄기 라인업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디지털 인쇄 사업을 겸하는 POD 출력소는 물론 대규모 상업 인쇄사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캐논코리아, 하반기 컨슈머 신제품 발표회 개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9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캐논 2011년 DSLR 프린터'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신제품 발표회에서 캐논은 대용량 잉크를 탑재한 비즈니스 복합기 E500을 비롯해 MG6270, MG5370 등 신제품 7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E500은 비즈니스용 잉크젯 복합기로 800매가 출력 가능한 대용량 잉크를 채택했으며, 파스트 프론트(Fast Front) 기능으로 앞의 자리에서 간편하게 용지 적재 및 잉크 교체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MG6270은 흑백 12.5ipm, 컬러 9.3ipm의 인쇄속도로, PIXMA Cloud Printing 지원, 세계 최고 해상도인 9600dpi, Intelligent Touch System 지원, 3.0인치 TFT LCD를 장착했으며, 자동 양면 출력과 일체 복사, 스캔을 위한 Advanced Z-lid 기능이 탑재되었다.

MG5370은 인터넷의 원하는 부분을 한 페이지로 마음대로 모아 출력력이 가능하며, 무선 네트워크 지원, PIXMA Cloud Link 기능, Full HD Movie Print 기능이 가능하며, 3.0인치 TFT LC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PIXMA iP4970, MG4170, MG3170, MG2170 등도 함께 출시했으며,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신제품 발표회 기간 중 '프린터 가지고 놀기' 강의를 통해 캐논 제품 디자인, 기능, 사진 출력, 클라우드 서비스, 친환경성 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한국후지제록스
에너지 절약하는 흑백 복합기 5종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10월 5일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신개념 기술을 탑재해 에너지 절약 및 소음 감소에 효과적인 흑백



복합기 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흑백 복합기는 아페오스포트(ApeosPort)-IV 5070/4070/3070과 도큐센터(DocuCentre)-IV 5070/4070으로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Smart Energy Management Technology)'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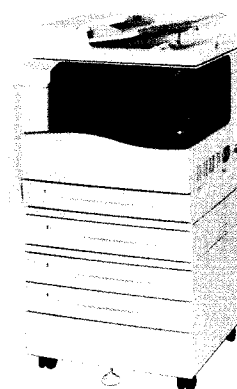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이란 사용하는 기능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절전 모드를 해제하더라도 복합기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전력이 공급되어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다. 또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의 기계적인 소음도 현저히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스캔을 하거나 팩스를 전송할 때, 사용하지 않는 출력 장치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무실 내 조용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신제품은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 태스킹 기능을 강화했다. 복합기로 팩스를 보내거나 스캔 작업을 하는 중에도 동시에 문서 출력이 가능해 사무실 내 업무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된다.

출력 속도는 분당 최대 55매이며, 흑백과 컬러 문서 모두 분당 70매의 빠른 속도로 스캔할 수 있다. 또한 후지제록스의 모바일 프린팅 앱과의 연동을 통해 프린트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없이 모바일 기기로도 손쉽게 출력 작업이 가능하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이번 신제품은 낭비되는 에너지는 막고, 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는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후지제록스
소호기업 위한 흑백 복합기 2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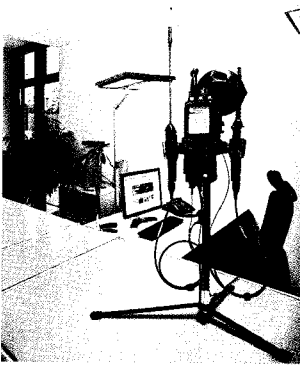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10월 10일 중소 및 소호(SOHO) 기업을 위한 A3 흑백 복합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흑백 복합기 도큐센터 2058/2056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복사, 출력, 스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및 소호 기업이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규모 및

업무 특성에 따라 △복사 및 출력 속도 △자동원고이송장치 장착 △용지 트레이 구성 등 세부 옵션을 맞춤 선택할 수 있어 복합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용절감과 문서보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용자 인증 기능 또한 이 제품의 특징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별 문서의 출력량을 집계하고 출력량의 상한선을 개별적으로 설정해 복합기 유지비를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이번 출시된 복합기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시하는 중소 및 소호 기업에 매력적인 제품”이라며,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고객의 업무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사양을 맞춤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테스토코리아

다기능측정기 'testo 480' 출시



테스토 코리아(지사장 이명식)가 쾌적한 업무공간, 최적의 작업환경, 최적의 효율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기능 측정기 testo 480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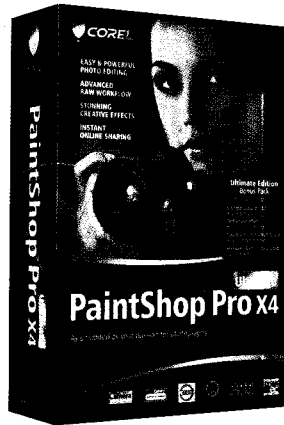
testo 480은 본체와 함께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프로브를 이용하여 건물의 벽과 창, 마루, 천장의 표면온도, 실내 습도, 공기의 흐름과 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 온습도와 풍속, 압력, 조도, 방사열, 난류 및 CO₂ 등을 측정한다. 또 'Easy Climat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 저장, 리포트 생성 및 구성을 동시에 해낼 수도 있다. 공조 관리 전문가 및 유지보수 전문가, 엔지니어 전문가에게 통합적인 시스템 개념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공조시스템의 운영을 축소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약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 측정기를 한 손으로 작동시키는 광학 트랙패드(스마트폰 블랙베리)로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testo 480은 측정 환경의 특징에 맞춘 쾌적도측정 세트와 HVAC측정 세트를 구성하고 있다.

테스토 코리아 관계자는 “최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실내 환경도 업무의 효율성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전문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측정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조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렐, 한글 페인트샵 프로 X4 출시



코렐코리아(지사장 김준오)는 최근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인 '한글 Corel PaintShop Pro X4 Ultimate'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페인트샵 프로 X4는 DSLR 전문 사용자를 위해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면서 전체 포토 컬렉션을 기업적으로 관리, 조정, 편집 및 배포할 수 있는 도구와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페인트샵 프로 X4에는 새로운 사진 편집 기능, 탁월해진 속도와 성능,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협력회사와 소셜 미디어를 고려한 편리한 배포기능을 통해 다른 전문 편집 소프트웨어에 비해 더욱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페인트샵 프로 선임 제품 관리자인 Craig Cople씨는 “우리는 업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페인트샵 프로 X4를 개발했다. 페인트샵 프로 사용자 층은 매우 다양하고 사진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다. 사용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직관적이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예술적 자유를 찾고 빠르게 비전을 달성한다는 점은 같다. 우리는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업그레이드된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업체 뉴스

▼신도리코, CS부문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응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최근 CS부문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및 품질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일반 기업은 물론, 소비자 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 부서 등에서 종사하는 고객 서비스 전문가로,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와 기업의 고객관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불만이나 피해 상담을 담당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신도리코의 CS부문 직원들은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올 하반기 필기와 실기 시험을 응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담 업무와 직결된 고객상담 직원뿐만 아니라 CS지원부서 관리직군 시험에 자발적으로 응시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인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리코는 지난 5월 국내 사무기기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도입 후 IT업계 최초로 QR코드 고객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금번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응시까지 진행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험 응시자를 위해 신도리코는 자율적인 개인 주도형 학습 방법과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통한 강의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여 업무와 교육의 효율적인 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도리코 김성웅이사는 "고객의 업무와 직결되는 기업용 프린터, 복합기 시장은 전문적인 서비스기술력과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필수 경쟁력"이라며 "업계 최대 규모의 전국 2천명의 서비스 인력에 대해 신도리코는 전문성 강화를 계속하며 더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캐논코리아, IA Seoul 2011 심포지엄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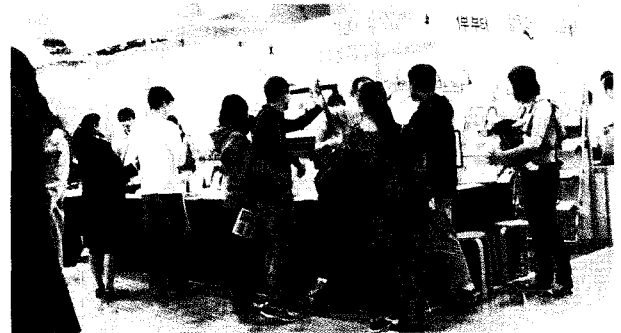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2011 서울 제 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IA Seoul 2011)의 부대행사인 국제심포지엄에 김천주 대표이사가 한국 사례대표로 참석해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천주 대표이사는 '장애, 일 그리고 사회통합'에 관한 강연을 펼쳤으며, 에콰도르 사례로는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에콰도르 부통령, 미국 사례로는 요셉 박(Joseph Pak) 미국 국가 장애인위원회 멤버, 캐나다 사례로는 안드리아 스피들(Andria Spindel) March of Dimes Canada 대표, 스리랑카 사례로는 메하말리 알루위하(Meghamali Aluwihare) 경영자총연합 대표, 일본 사례로는 오사무 이구치(Osamu Iguch) 중증장애인고용협회 이사가 참석하였다.

캐논코리아 김천주 대표이사는 "기업의 모토인 나눔경영에 따라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물론, 장애사원들이 자신감과 독립심, 도전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례 대표로 참석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진에드컴, 베이비엑스포서 스타북 전시



성진에드컴(대표 이정희)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간편하게 편집·제작할 수 있는 스타북과 스타 캘린더를 선보였다.

간편함과 다양성을 내세운 스타북은 홈페이지 회원가입만으로도 세계적인 포토북 프로그램 TAOPIX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스타북은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포토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동 사진배열 기능 등 단 몇 분 만에 쉽게 포토북 편집이 가능해 고객의 짧은 납기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는 스타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파일이동이 가능해 작업 장소에 제한이 거의 없다.

성진에드컴의 관계자는 "무료로 포토북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1부부터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고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동영상 프로그램 활용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

서울대에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 구축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9월 23일 문세나 사진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 놓고 학교, 편의점, 도서관, 기업 등 어디에서나 스마트 카드 타입의 학생증(S-CARD/K-CASH)로 출력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을 서울대학교 내에 구축했다.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은 학생 또는 일반인이 PC 및 노트북 등으로 집이나 학교에서 만든 문서를 송신하면, 복합기, 단말기 및 프로토콜이 연결되어, 인증처리/ 스펴보관/ 출력요청시 DATA 송신/ 권한관리/ 결제관리 등 인증 및 과금출력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한다.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제품은 출력과 복사를 위해 결제인증 단말기가 부착된 복합기로, 클라우드 U프린팅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만든 문서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한 뒤 교내 100여곳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전자화폐 IC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프린터 단말기에 갖다 대면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된 출력물을 바로 인식하고 출력 및 과금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클라우드망을 이용한 U프린팅은 전국 어디서나 복합기에 부착된 단말기 인증을 통해 실시간 출력이 가능하며, 수도권외 T머니, 캐슈비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권의 마이비 및 금융결제원의 K캐쉬 등 선불카드 결제를 지원해 고객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라며 “운영중인 복합기 및 단말기 상태 조회, 실시간 과금정보, 운영장애 예보기능 등 최상의 웹기반 무인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어도비, 디지털비디오 사업강화위해 칼 쏠레 선임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9월 27일 칼 쏠레(Karl Soule)가 어도비 아태지역 디지털 비디오 부문 사업 개발 매니저로 선임되었다고 발표했다.

어도비 전문가 및 세계적

인 연설자로도 유명한 칼 쏠레는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 호주, 대만, 홍콩, 중국, 동남아시아 등 디지털 비디오 고객층이 급증하고 있는 아태지역 13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비디오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어도비, 온라인 생중계 컨퍼런스 개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10월 12일 디자인 포 임팩트(Design for Impact) 온라인 생중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도비시스템즈에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리듬 앤 휴즈(Rhythm & Hues Studio)의 후신 칸(Hussin Khan), 바사바(Vasava) 스튜디오의 엔릭 고데스(Enric Godes)와 브루노 셀레스(Bruno Selles), JEDI 프로덕션(JEDI Productions)의 래티시아 잔 프랑코(Laetitia Jean Franco) 등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들은 물론, 어도비 비디오 부문 이밴절리스트 칼 쏠레(Karl Soule)와 어도비 플래시 및 오픈웹 부문 이밴절리스트 마이클 스토다트(Michael Stoddart) 등이 업계의 최신 정보와 다양한 노하우들을 제공했다.

디자인 포 임팩트는 어도비 이밴절리스트 및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이미징,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션 그래픽, 비디오 등 디지털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나누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10여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어 동시 통역과 실시간 한국어 질문 및 답변이 이루어져 국내 참가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 코렐, 아태 디지털아트경진대회 개막

코렐코리아(지사장 김준오)는 코렐사(<http://www.corel.com>)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코렐 아태 디지털 아트 경진대회(Corel Asia-Pacific Digital Art Competition 2011)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아태지역 디자인 경진대회는 총 상금이 4만 달러가 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회 중 하나다. 이 대회는 아태지역의 코렐 사용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우승자는 내년 3월 15일 코렐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코렐 글로벌 마케팅 전무이사인 Juliet Ku씨는 “디지털 경진 대회는 아태지역 코렐 사용자 의 재능과 독창력을 발굴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해가 갈수록 창조성의 한계를 넓히고, 영감을 주는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많은 디자이너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지뉴스

▼ 한국제지, 서울 국제공구전 참가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1 서울 국제 공구전에 계양전기의 관계사로 참가하여 신제품 밀크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는 계양전기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한국제지와 계양전기의 관계를 묻는 관람객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새로운 복사자인 밀크 포토용지의 품질을 적극 홍보하며 많은 전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

▼ 한국제지, 우수사원 해외선진기업견학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2010~2011년 우수사원 총 22명(공장 17명, 본사 3명, 협력업체 2명)을 대상으로 해외선진기업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4박 5일간 중국의 상해, 소주, 항주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항주에 위치한 영태제지와 부태비봉제지를 방문하여 제조공정을 견학하고 상해 포동 경제발전위원회, 홍구공원 등 주요관광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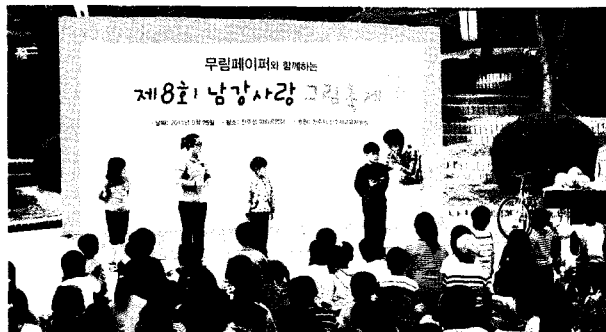
의 공장을 견학한 우수사원들은 중국 제지업체의 경우 기술력은 아직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나 대규모의 공장 부지와 대형설비 등 규모면에서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G2로 떠오른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 무림, 사보협회 종이교육 강의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9월 21일 전문 사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강의는 국내 주요기업의 종이사보 담당자들이 대상으로 '사보와 종이'를 주제로 종이의 종류와 제조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더해, 특히 사보를 돋보이게 하는 종이의 선택과 활용법, 그리고 다양한 인쇄 후가공까지 사보담당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제 케이스를 통한 설명했다. 한편 무림은 사보담당자뿐만 아니라 편집 디자이너 등 종이관련 실무자들에게도 종이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림페이퍼, 제8회 남강사랑그림축제 개최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는 지난 9월 25일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남강사랑그림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그림 축제는 진주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전 9시 난타공연과 함께 시작했다. 오전에는 '그림 그리기'를, 오후에는 '장기자랑', '팀별 게임'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진주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림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예년과 달리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1500여명이 참가해 그림을 그리면서 진주의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을 들었다.

>> 출판및 관련업계 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남기심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등 10명이 한글발전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번 한글날에는 보관문화훈장 2명, 문화포장 3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으로 총 10명이 한글발전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

문화훈장을 받은 남기심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은 1963년 학교 문법의 용어가 통일된 이후에도 혼란이 계속되는 학교 문법의 체계를 단일화하여 이른바 '통일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고, 한글맞춤법 등 국어정책 방향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업적이 높게 평가받았다.

블라디미르 푸체크(Vladim r PUCEK) 체코 찰스대학교 교수도 한글 발전 유공자 훈장 포상자로 선정되었다. 푸체크 교수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공화국의 한국어학 발전과 한국어 보급에 일생을 바쳐 왔으며,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찰스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으로 일하면서 1950년에 설립된 한국어학과가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손호민 미국 한국어교육연구센터 이사장, 마우리치오 리오토 이탈리아 나폴리대학 교수, 박영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어 세계화 및 국어 교육 연구의 공로로 문화포장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박널리 카자흐 세계언어대학 교수, 오영원 니소가쿠사대학 교수가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다시돌호 생비렉트 몽골 국립대 교수, 오선영 홍콩 시티대학 교수, 김석원 키예프 국립대 교수가 한국어 전 공 개설 및 한국어 교육 확산의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출협,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 설치 운영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행두)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63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참가해 한국관을 설치 운영했다.

올해 한국관에는 교원, 능률교육, 문학동네, 사계절출판사, 예림당, 형설아이 등을 비롯해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국내 출판사 및 관련 단체 11개사가 참가했다. 출협은 참가사들의 대표도서 영문초록을 수록한 한국관 안내 브로셔와 한국의 출판 동향을 포함한 영문 회원명부를 배포해 국내 도서와 출판사를 홍보하고, 참가사의 현지 저작권 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2011 블로나아동도서전' 한국관에서 진행했던 '소녀'를 주제로 한 그림책전시회와 함께 외국어로 출판된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관련 책을 전시한 '책으로 가보는 한국' 특별전을 운영했다.

한편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은 아이슬란드였으며, '멋진 아이슬란드(Fabulous Iceland)'라는 슬로건 아래 자국의 언어와 음악, 출판물 소개할 다양한 주제의 토론, 콘서트, 사인회 등을 진행했다.

▼ 문화재청,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개최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권석주)는 지난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조선의 왕들이 머물며 심신을 수양하던 창덕궁 후원 6개소의 정자를 개방해 도서를 비치한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기간에는 1회 100명이었던 후원 관람인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정해진 시간에 입장은 하되 자유 관람 형태로 운영됐다.

이 행사는 1년에 봄과 가을 두차례에 열리는 행사로 도시 생활의 각박함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로움이 뛰어난 창덕궁 후원에서, 궁궐의 품격 있는 여유로움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한관람 때문에 아쉬움이 컸던 관람객들에게 궁궐 후원의 가을 정취와 책을 함께 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풍성한 가을맞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미래 정보사회의 중심, 도서관의 스마트한 변화'를 주제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전국의 도서관인들이 모여 도서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도서관문화 조성, 사서직의 권익신장 등 도서관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1962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가 48회째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도서관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유관단체 관계자, 문헌정보학 연구자, 학생, 도서관 관련 회사 임직원 등 약 2700여명이 참석했다.

19일 개회식에서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1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시상식'이 열렸다. 또한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는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대전광역시 도서관 탐방하고 문화체험을 갖는 자유 일정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서관문화전시회 전시장내에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직자인쇄체험관뿐만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 홍보전, 2011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홍보관, 대전광역시 공공도서관 홍보관도 함께 마련됐다.

▼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전 실시

제6회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출판협회, 예스이십사(yes24) 및 웅진씽크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응모자들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예스이십사 홈페이지(www.yes24.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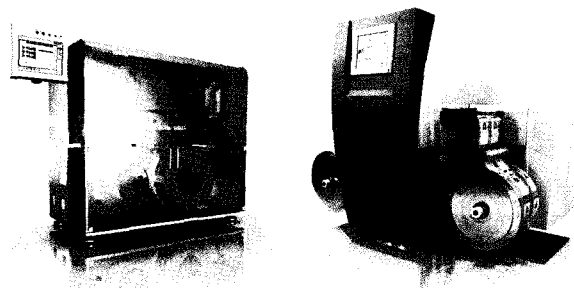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대상(1편), 우수상(2편), 특별상(1편, 청소년 부문), 장려상(9편) 등 총 13편을 선정하며, 공모전 결과는 12월 20일 경 발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2천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매일경제회장상, 전자출판협회장상 및 상금(각 5백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3백만 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출판협회장상, 후원업체상 및 상금(각 1백만 원)이 수여된다.

한편 2006년 제1회 디지털작가상 공모전에는 146편이 응모했지만 최근에는 300~500여 편의 작품이 응모되는 등 해마다 디지털작가상 공모전에 대한 디지털 작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해외뉴스

▼ 하이델베르크, 라벨엑스포서 ITS 600 등 선택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 개최된 라벨엑스포 유럽(LabelExpo Europe 2011)에서 하이델베르크 사는 라벨 인쇄사와 패키징 제작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 솔루션을 전시했다. 최근 하이델베르크 사가 인수한 디지털 인쇄시스템 제조회사인 CSAT 사가 처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사 아래 ITS 600 디지털 drop-on-demand 잉크젯 인쇄 시스템(사진 왼쪽)을 선보였다. 또 전시회에서는 Linoprint DriveLine B(사진 오른쪽)도 볼 수 있었다. 이 두 제품은 패키징 분야에서 가변의 단통 인쇄물을 비용-효과적으로 제작하는데 적합한 솔루션이다.

CSAT사의 ITS 600 디지털 drop-on-demand 잉크젯 인쇄 시스템은 가변형 라벨 인쇄에 이상적이며, 인쇄 품질, 가변성 및 생산성에 대한 높은 요구에 응하는 반면 생산비용은 낮다. 칼라 인쇄 시스템은 UV 잉크를 사용해 종이, 플라스틱, 포일 및 합성 용지에 600 dpi의 기본 해상도로 인쇄된다. 모든 용지는 48 m/min의 최고 속도에 420mm의 최대 폭으로 인쇄된다. LED UV 중간 건조를 통해 어떤 인쇄 속도에서도 높은 인쇄 품질이 유지된다. 완전 자동 인쇄 헤드 세척은 안정적 인쇄가 가능하게 하는데, 인쇄기가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을 때만 세척이 시작돼 가동 중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는다. 시스템은 roll-to-roll 인쇄 시스템이나 인라인 솔루션으로 패키징 라인에 바로 통합되어 제공될 수도 있다. 오프라인 기계로서 ITS 600은 후가공에 바로 연결될 수도 있다. 유연한 디지털 잉크젯 UV 인쇄 시스템인 Linoprint DriveLine B는 포일, 블리스터 용지 등 까다로운 소재에도 다양한 규격과 고품질로 다색 인쇄가 가능하며 전체 인쇄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변형이나 고객별 개인화 인쇄도 가능하다. 최고 속도 24 m/min에서 최대 폭 340mm까지의 용지를 다룰 수 있다. 독립적인 솔루션으로 DriveLine B는 동시에 여러 패키징 라인을 취급할 수 있어 여러 패키징 라인에 사용되는 중앙 포일 인쇄기로서 이상적이다.

하이델베르크 사의 디지털 패키징 인쇄 총책임자 다니엘 드레이어(Daniel Dreyer)씨는 "디지털 인쇄는 인쇄 산업 내 중요한 성장 시장이다. 또한 패키징과 라벨도 마찬가지다. Drop-on-demand 잉크젯 기술은 최근 패키징 산업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그 기술 개발을 빨리 시작한 편이고 Linoprint를 통해 곧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SAT 인쇄 시스템을 합병함으로써 제품 라인을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인쇄 전략 확대를 계속해 하이델베르크의 입지를 강화하고 패키징 및 라벨 분야에서 고품질 인쇄 기술에서 선두를 지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하이델베르크 사, 중국 공장 확장

하이델베르크 사는 지난 9월 28일 중국 상하이 인근에 위치한 Qingpu의 공장을 증축했다. 이번 증축으로 공장 생산 면적이 약 45,000 평방미터로 넓어져 4년만에 공간만 3배 확장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는 중소 규격의 인쇄기와 접지기를 2005년부터



Qingpu 공장에서 제작해왔다. 작년부터는 대국전 70 x 100 cm 규격의 인쇄기 제작도 시작해 현재는 중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본적 기계를 생산하게 되었다. 약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하이델베르크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향후 이웃 국가로 수출되는 기본 사양 기계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하이델베르크 사의 CEO인 버너하르트 슈라이어 씨는 오프닝 행사에서 "중국은 현재 최고의 단독 판매 시장으로서 회사 사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쇄물의 수요도 중국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난 10년에 걸쳐 3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계의 3분의 1은 이곳 Qingpu에서 나온다. 중국 내 생산된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미래에 또 다른 고객 층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 하이델베르크, ISO 9001/14001 재인증

하이델베르크는 지난 9월 ISO 9001와 ISO 14001에 따라 관리 시스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시스템 평가는 DQS GmbH (Deutsche Gesellschaft zur Zertifizierung von Managementsystemen)의 감사관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감사는 Brandenburg, Heidelberg, Langenfeld와 Wiesloch-Walldorf의 각 현장에서 실시됐다.

감사관들은 하이델베르크가 각 표준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인증처에게 현재의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하이델베르크는 처음으로 인쇄재료와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 및 컨설팅 부분도 올해 고객 관련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 만로랜드

쥘트도이체 출판사에 로랜드700 다이렉트 공급

만로랜드는 독일 유수의 출판그룹인 쥘트도이체 출판사에 로랜드 700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제어콘솔을 제외하고도 길이가 15미터이고 무게가 70톤이나 달하는 거대한 새로운 ROLAND 700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줌트도이체 출판사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만로랜드의 장비가 되었다. 줌트도이체출판사의 Udo Vogt이사는 “만드랜드의 양면8색기로 인쇄한 풍경은 우리회사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줌트도이체출판사는 새로 도입한 로랜드700다이렉트를 이용, 정기간행물, 저널잡지 기관, 출판사 뿐 아니라 일반산업 및 글로벌회사의 사업보고서의 발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만로랜드의 ROLAND 700 Direct Drive은 인쇄준비시간을 약 60%나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직접구동과 완전자동판교환장치는 동시에 모든 판 바꾸는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준비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워크프로세스를 간략화했다. 1분 이내에 인쇄유닛 8개를 바꿀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불랭킷을 세탁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인쇄기의 앞, 끝 인쇄부분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인쇄과정에 인쇄제품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표준설비인 퀵 스타트 제어판을 누르면 먼저 정지한 후 가속장치를 누르면 인쇄속도를 가속하고 동시에 종이도 급지된다. 이처럼 간략화한 워크프로세스로 준비시간을 크게 줄여 낭비를 대폭 줄였다.

또한 저알콜인쇄, FSC인증, 기후와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인쇄기술의 가능성 등 환경을 배려하는 의식과 행동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자원절약형의 기업이념을 통하여 프로세스 스탠드드 오프셋(PSO) 인증을 받고 고품질인 색채검용제품을 확보하며 믿음성이 있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만로랜드는 밝혔다.

만로랜드, auto print APL InterTech서 수상



만로랜드의 auto print APL(Automatic Plate Loading)이 미국 인쇄업계에서 주최한 2011 InterTech™에서 기술상을 수상했다. auto print는 만드랜드의 원터치 인쇄기시리즈중의 한 제품으로 현

대운영컨셉을 실현한 특별한 제품이라고 만로랜드는 소개했다. 이 제품은 APL 기술을 통한 인쇄준비시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폐쇄루프 기술을 통하여 만드랜드의 원터치비전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auto print APL은 여러 기술의 조합을 통하여 신문인쇄기의 준비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했다.

InterTech의 기술상은 위대한 혁신을 통해 인쇄업계의 발전을 가져다준 제품에만 수여해 왔다. 올해 InterTech™ 상의 수상식은 지난 9월11일 미국 일리노주 시카고에서 열렸다.

▼ 코닥, 중국 상업인쇄사에 1만5천번째 CTP 설치

중국 허베이에서 가장 큰 상업인쇄 회사인 Wuhan JinGang은 최근 1만5000번째로 코닥의 서멀CTP를 설치했다. Wuhan JinGang은 서멀8-Page CTP기기가 제공하는 뛰어난 이미지 품질, 안정성 그리고 진보된 자동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오토로더와 함께 시간당 34판을 처리하는 코닥 트랜스세터 800 플레이트세터를 설치했다.

Wuhan JinGang은 이외에도 코닥 프리너지 컨넥트 워크플로, 코닥 매치프린트 잉크젯 프루핑시스템과 코닥에서 판매 중인 코나카미놀타의 비즈허브 프레스 C6000의 구매를 위한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Wuhan JinGang의 Wu Shaoguo CEO는 “우리는 코닥을 선택했다. 코닥은 CTP, 컬러 관리, 프루핑 그리고 디지털 프린트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자동화 능력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왔는데 이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더 높은 이미지 품질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품들을 설치함으로써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코닥, NX 디지털컬러이미징 시스템을 위한 새 RECIPE 컬러 프로파일러 공개

코닥은 코닥 APPROVAL NX Digital Color Imaging System 사용자들에게 새 도구인 코닥 RECIPE COLOR Profiler를 통해 원하는 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RECIPE COLOR Profiler를 사용하여 원료와 노동 비용을 줄이는 미디어의 서너개 정도의 시트 사용 또한 제거하면서 스폿 컬러 레시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미만으로 감소된다. 스폿컬러의 잉크젯 프루핑과는 달리 APPROVAL NX System은 실제 물질과 뚜렷한 정확성을 가져다 주는 잉크 레이아웃 오더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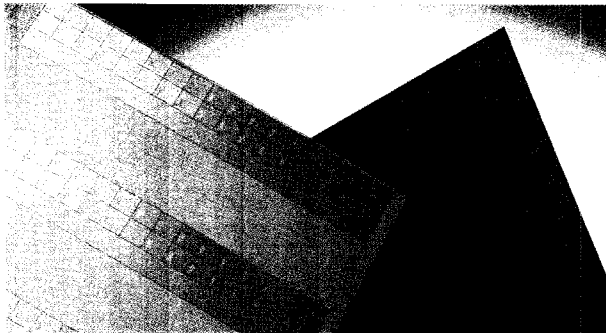
Reproservice Eurodigital GmbH의 Peter Hamm 대표는 “APPROVAL NX System 에서 하프톤 프루핑은 정확한 프레스 산출물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고객들은 계약된 품질의 프루프를 기대하지만 그들은 또한 비용에 대해 매우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비용을 감소시키도록 돕는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사업에는 귀중한 부가물이 될 것이다.

RECIPE COLOR Profiler는 우리의 운용자가 고객들이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더 적게 사용하는 동안 더 적은 시간 안에 프루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APPROVAL NX 시스템은 튼튼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친 신뢰받을 수 있는 패키지 프루핑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컬러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소모품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프로세스, 스폿, 그리고 석판 오프셋, 플렉소그래픽이나 그라비아 프린팅을 위한 메탈 컬러의 예측을 가능케 해준다. 2400 또는 2540dpi의 해상도에서 트루 하프톤 품질의 컬러 프루핑을 제공하는 APPROVAL NX 시스템은 컬러를 안정성이 높고 3차원 패키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랫 시트를 포함한 마지막 프린트 부분 나오도록 해준다.

패키징 프러덕트 그룹의 마케팅 책임자인 Kuty Paperny는 “컬러는 브랜드의 모든 것이며 그래서 프레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프로세스 또는 마지막 마무리된 부분에 사용되는 수 천개의 물질에 대한 스포트컬러에서 트루 하프톤 도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닥, 고품질 수요 충족시키는 TRILLIAN SP Plates



코닥은 SP 서멀판으로 고품질 제품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전 그래픽스의 Mark Steputis 대표는 “우리는 56인치 대형 프레스인 ROLAND 900을 운용했으며 스타카토와 UV를 운용했고 15-gauge 플레이트가 필요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을 위한 선택은 코닥 TRILLIAN SP Plates였다. 이 선택으로 고객들의 개선된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코닥 TRILLIAN SP Plates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디지털판재와 비교했을 때 생산 비용과 환경에 주는 잠재적 영향을 줄여 주며 적절한 조합으로 뛰어난 생산성, 감소된 화학물과 효율성 있는 작업수행능력을 제공한다. 특허를 받은 네거티브 코팅은 섬세함과 해상도가 높고 지속성, 화학적 저항성과 내구성을 공급한다. 특별히 선명한 디테일과 short- and long-run AM, FM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 이외에도 빠른 처리 속도와 예열이 필요 없는 작업시간을 제공한다. Steputis 대표는 “이전 체제에서 바람직한 결과들을 내놓기 위해 많은 상호작용을 요구했으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작업들은 수 많은 조정과 확장된 판 고르기, 승인 횟수를 만들어 냈다며 TRILLIAN

SP Plates를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어려운 작업들에 사용했고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와 환상적인 결과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뉴스

▼ 2012년 달력인쇄시 선거일 법정공휴일로 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달력제작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일과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2년 4월 11일(수)이며,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2년 12월 9일(수)이다.

▼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모니터링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한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해 구매정보망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전실태조사 생략업체 및 유효기간 자동연장 업체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모니터링은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 적합 여부, 제도 변경내용(기준미충족시 30일 이내 반납 등) 안내, 제도 위반 시 제재사항 안내를 통한 직접생산 이행지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중기청, 2012년 중소기업 예산 6조1629억원

내년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 9일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이 올해(5조 9762억원) 보다 3.1% 증가한 6조 1629억원에 책정됐다고 밝혔다. 중기청 측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창업투자보조금)과 차입금 상환액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약 6.5%(3891억원) 증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창업 촉진 및 중소기업 R&D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우선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이 올해(1916억원)에서 4165억원으로 117.4% 증가했다.

중소기업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8개 사업을 선정, R&D개발 확대를 위해 모두 71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13.7%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중기청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7536억원을,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1조 13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